

관습과 고정관념 벗어나 새 문화현상 만든다!

이석렬 | 음악평론가

예술공연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전통을 계승하느냐 아니면 전통을 수정하느냐의 문제는 각자의 선택에 맡길 일이다. 새로운 발상이 보다 많은 수요자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음악감상의 장을 창출한다면 그것을 생산적인 발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발상이 참신하며, 그 참신한 발상이 예술을 존중하는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전통이나 기존관습이 갖는 장점과 단점, 이 양면을 함께 보는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불이익을 남지 않는 일이다.



‘공연 속의 공연’이 열렸던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생산적인 이탈

세상에는 ‘생산적인 이탈’이란 것이 있다. 속세말로는 ‘빠딱한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으나 맹목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도움과 활력을 주는 빠딱한 행동들을 말한다.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기존관념과 전통 의식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거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을 때 인간은 이탈을 생각하게 된다.

인간의 문화활동이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면 이상적인 모델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이 모델을 추종하게 된다. 뛰어난 두뇌들까지 참여해 결정화시킨 모델과 관습이라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클래식 음악계에도 이상적인 모델들은 있다. 공연 형태에서도 그 모델들은 엄연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보자. 클래식 음악공연은 저녁 7시 이후에 펼쳐진다는 것, 무대 위에는 점잖고 격조 있는 의상들이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공연 장소는 이상적인 음향시설을 갖춘 전문적인 연주회장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교향악단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시·도, 혹은 대기업의 후원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있다.

물론 이런 배경을 엮고 펼쳐지는 음악회들이 예술음악의 진수를 전하는 데 효율적이긴 하다. 그렇지만 이런 격식과 배경을 중심축으로 해서 연주회를 열어야만 한다는 사고는 역으로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기도 한다.

쉬운 예를 들어 보자. 연주회가 저녁에만 펼쳐져야 한다는 생각은 오전 연주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전문 연주회장만을 고집하는 관습은 음악이 연주되는 장소의 수를 제한하게 된다. 교향악단이 국공립단체여야 한다는 생각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오케스트라’라는 개념을 위축시킨다.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관습화된 ‘이상적 모델’은 상당히 효율적이긴 하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 예술음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공연이나 사건들 중에는 그런 '이상적 모델'로 인해 위축됐던 측면들을 공략하는 것들이 있다. 어찌 보면 사물의 양면을 함께 보는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고, 관습의 틀을 벗어나 보다 많은 청중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려는 음악회들

'모닝콘서트'라는 용어는 한국음악계에 생소한 용어다. 일반적으로 연주회는 저녁에 열리지만 모닝콘서트는 오전에 열리는 것이다. 부천 필하모닉은 올해 8차례에 걸쳐 오전 11시에 모닝콘서트를 연다.

이미 지난 2월 18일 경기도 부천시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주부와 어린이들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모닝콘서트를 열었다. 저녁 시간에 공연장을 찾기 힘들고 서울의 문화시설까지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천 필하모닉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기획이다.

2월 18일의 모닝콘서트에서는 부천 필하모닉의 오보에 수석인 이명진을 비롯해 부천 필하모닉의 5명의 목관악기 주자들이 귀에 익은 오페라 아리아의 선율들을 앙상블로 들려주었다. 이 음악회는 강좌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에 대한 해설도 곁들여졌다. 부천 필하모닉은 3세 이상 어린이도 클래식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오전 11시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하는 '초록 파랑 음악회'도 열 예정이라고 한다. 자신들이 근거한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어머니이기도 하다. 여성을 연주회장으로 이끌면 그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사회의 문화수요는 넓혀지고 인적 문화인프라도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성들을 겨냥한 '오전콘서트'는 지난해 9월부터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매달 1차례

씩 김용배 사장의 해설로 '목요일의 브런치 11시 콘서트'가 진행됐는데, 지난해에는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다가 올해는 개보수 공사 때문에 오페라극장으로 무대를 옮겼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좌석이 매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다고 한다.

'모닝콘서트'와 '목요일의 브런치 11시 콘서트'로 대변되는 오전음악회가 시간의 격식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라면 장소의 제한을 넘어서려는 움직임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명동성당은 한국 가톨릭계의 유서 깊은 명소이다. 그런 명동성당에서 장중한 파이프오르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연주회가 열리고 있다. 혹자는 명동성당이 음악회장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겠으나, 사실 유럽의 중세시대부터 교회는 일반 대중들이 전문가들의 예술성을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였다.

명동성당의 아름다운 건축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는 6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다고 한다. 파이프오르간 연주는 명동성당 반주단 소속 오르가니스트들이 교대로 자원 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문화적 욕구를 느끼는 학생들과 점심시간대의 직장인을 상대로 하는 음악회라서 연주곡목도 친근한 곡들로 채워진다. 고딕양식의 성당에 앉아 스테인드글래스를 바라보며 예술적 환영에 빠져들 수 있는 음악회, 이런 체험은 대표적인 연주회장인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불가능한 것이다.

'전통적인 연주회장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이탈성을 작품성 자체와 연계시키는 대표적인 음악공연으로는 21세기악회의 '공연 속의 공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을 비롯해 새로운 곳을 찾아 공연을 펼치는 '공연 속의 공연' 프로젝트는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만남, 새로운 상상력의 발동, 낯설음과 익숙함의 조화 등을 지향하는 공연이다.

올해 3월에 펼쳐진 21세기악회의 〈뮤직투데이, 서울 2005〉 축제에서도 ‘앙코르, 공연 속의 공연’이 펼쳐졌다. 발표자는 박영란, 이승연, 이윤경, 이윤석, 임선애, 정순도 6인이었으며 공연이 행해진 장소는 전문적인 음악회장이 아니라 흥국생명 건물의 로비였다. ‘공연 속의 공연’은 회원들에게 새로운 실험 무대를 제공하며 타 예술 장르의 전문인들과 공동작업이 이루어지는 계기도 제공한다. 집을 떠나면 새로운 환경과 인연을 만나듯 전통적인 연주회장을 벗어나 창작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다. 21세기악회의 ‘공연 속의 공연’ 시리즈는 2001년부터 매년 장소를 바꾸어 다른 규모와 내용으로 10여 차례 발표된 바 있다.

새로운 발상으로 교향악단을 만든다

4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창단 공연을 가진 ‘을숙도 교향악단’은 그 이름부터 파격적이다. 교향악단은 대개가 국가나 시·도, 극장 등의 이름을 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악단은 지역 사회에 위치한 자그마한 섬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 그 취지는 부산 지역의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을숙도의 황폐화를 막자는 뜻이라고 한다. 그런데 더욱 파격적인 것은 이 교향악단이 창단된 방식이다.

대부분의 한국 음악인들은 교향악단이란 국가나 시·도 또는 대기업의 후원이 전제돼야만 탄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지만 이번 을숙도 교향악단의 창단은 그런 고정관념을 무색케 한다. ‘시민 펀드(fund)’로 운영되는 ‘시민 예술단’이라는 모토로, 시민 모금을 통해 운영 기금이 마련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창단됐기 때문이다.

또한 을숙도 교향악단의 행보는 참신한 이탈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이 악단이 현재 활동하는 맥락을 보면 기존의 교향악단들과는 구분되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보인다. 시민단체들과 호흡을 함께하며 특히나 환경운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악단의 정체성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4월 3일에는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그린피스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부산 방문을 환영하는 음악회를 열었으며, 5월에는 금정산 살리기 축제에도 참여한다고 한다. 부산 시민들에게 ‘생태예술단’이란 모토를 각인시키기 위해 4월 12일 창단 기념 음악회에서는 입장료 대신 폐건전지와 집에 묵혀둔 10원짜리 동전들을 받았다.

이 악단은 사업자등록증을 낸 하나의 회사로 등록됐다고 한다. 그래서 단원이 된 젊은 연주자들에게는 노동부에서 1년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이 주어진다.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악단이 곧 회사이기 때문에 단원들에게는 고용·산업재해·의료 등 4대 보험이 제공된다고 한다. 을숙도 교향악단 측에서는 “악단을 회사로 설립하기는 자신들이 한국에서 처음일 것”이라고 공연하고 있을 정도다.

기존의 연주 방식을 벗어난 음악회들

광주 지역에서 활동중인 여성성악가 단체 중에 ‘한소리회’라는 인상적인 이름의 단체가 있다. 이들이 지난 4월 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펼친 연주회 제목은 〈여자들의 수다〉였다. 여자들이 펼치는 수다스런 분위기, 그것은 사실 클래식 공연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중하고 정숙해야 할 클래식 공연에 ‘한소리회’는 그에 상반되는 개념인 ‘수다스러움’을 부각시킨 것이다.

오랜 동안 클래식 공연은 공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청중들에게 정숙한 분위기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것은 대중들에게 클래식 음악공연이

명동성당은 한국 가톨릭계의 유서 깊은 명소이다. 그런 명동성당에서
장중한 파이프오르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연주회가 열리고 있다. 혹자는 명동성당이
음악회장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겠으나, 사실 유럽의 중세시대부터
교회는 일반 대중들이 전문가들의 예술성을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였다.

‘따분한 공연’ 혹은 ‘재미없는 공연’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했다. 동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생각 외의 결
과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대중들의 선입견을 해체하
고자 하는 발상이 충분히 나옴직하다.

한소리회의 연주회는 각양각색의 공연 행태를 보여
준다.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춤, 의상 등이 함
께 어우러져 축제적인 오페레타나 뮤지컬 분위기를 지
향한다. 음치교실, 공주병에 걸린 가수, 개다리춤을 추
는 성악가 등 예전의 성악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유머
감각들이 함께한다.

의상도 고매한 드레스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바지와
수녀복, 여자 텍시도 같은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들이
등장한다. 이 공연에서는 충만한 놀이문화와 유머 감각
이 여자들이 자아내는 예술적인 수다인 것이다. 이런
공연은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고
상함과 정숙함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젊음의 에너
지와 축제 분위기를 포용한 음악회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18일 창작음악 발표회로서는 보기 드문 연
주회가 영산아트홀에서 열렸다. 일반적으로 창작음악
발표회라고 하면 선율악기와 반주악기의 결합인 경우
가 많고 그래서 대부분은 현악기와 관악기, 타악기가
어우러지는 실내악 형태다.

그렇지만 아카데미 타악기 앙상블이 제16회 정기연
주회에서 한국 작곡가들에게 곡을 의뢰해 타악기 앙상
블만을 위한 창작음악 연주회를 펼친 것은 극히 이례적
인 기획이다. 창작음악을 의뢰하는 발상과 창작음악을
연주하는 방식이 기존의 경우들과는 분명히 달랐던 것
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작곡가 신유진, 이신우, 임지선, 이
귀숙, 정성엽의 작품들이 초연됐는데, 또 하나 특별했
던 것은 발표곡 사이의 휴식시간에 흥겨운 즉흥연주들

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음악적으로 비어 있어야 할 휴
식시간을 아카데미 타악기 앙상블은 그냥 비워두지 않
았다. 힙합 바지를 입은 젊은이들이 무대로 나와 청중
들이 알지 못하는 타악기들을 즉흥연주하는 모습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

생소하고 자그마한 악기를 소개하는 젊은이들은 본
능적인 리듬 감각으로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많은 창작
음악 발표회들이 학구적인 성향 때문에 청중들에게 어
려운 인상을 전해주곤 하지만, 이날 연주회는 중간중간
흥겹게 들려오는 민속 타악기들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인
상들이 감소될 수 있었다.

예술공연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전통을 계승하느냐
아니면 전통을 수정하느냐의 문제는 각자의 선택에 맡
길 일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술의 역사
에 있어서 전통으로부터의 이탈이 항상 부정적인 시선
을 받아오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발상이 보다 많은 수요자를 만들어내고 새로
운 음악감상의 장을 창출한다면 그것을 생산적인 발상
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위에서 필자가 얘기한 공연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으
며 어떤 것은 이제 시도 단계에 들어선 것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발상이 참신하며, 그 참신
한 발상이 예술을 존중하는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전통이
나 기존관습이 갖는 장점과 단점, 이 양면을 함께 보는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불이익을 낳지는 않을 것
이다. 🌸